

##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54 (2022. 12. 21. 수)

방국에 와서 최고로 바쁜 11월, 12월을 보내고 이제 한 숨 돌리고 있습니다. ㅎㅎ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실 한국에 비하면 투정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한사회, 아가페 등의 모든 행사를 마치느라 바빴습니다.

방국은 아마도 이세상에서 가장 월드컵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모르는 한국 경기 일정과 결과를 가르쳐주고, 국민 모두가 크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나뉩니다. 정작 방국은 월드컵예선에서 1승도 거두기 힘든 나라이지만 거리 곳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기로 펄럭이고 길거리에 메시는 왜 그리 많은지요. 열 명 중에 한 명은 아르헨티나 선수복을 입고 다닙니다. 놀랍죠? 결승전 하던 날은 경기를 보지 않아도 골이 들어갔음을 짐작하는 함성과, 끝난 이후 밤 1시가 넘었는데도 메시지를 외치며 거리를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매일, 모든 곳이 2002년 월드컵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메시와 아주 친근해 졌습니다. ㅎㅎ

### 아가페 현 상황

1. 아가페는 12월15일(목) 방학식 이후 신년 1월4일(수)에 개학을 합니다.

방학식날 개근상과 모범상 시상을 했습니다.

- 1) 개근상 - 우리 아이들은 몸이 약해서 100% 개근은 없습니다. 단지 무단 결석외에 아파서 못오는 경우는 결석처리를 하지 않지요. 결국은 부모님들의 개근상이 되는 셈입니다.

넬서리 - 라킴 / 스쿨 - 모리엄, 빠엘, 에호싼, 빌랄,



모리엄  
에호싼

빠엘  
빌랄



2) 모범상 - 선생님과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청소도 잘하는 아이들에게 수여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친구 식사를 받아다 주고, 손 씻을 물을 떠다주고, 만들기 이후 바닥청소, 책상과 의자 접고 펴는 일 등을 아주 잘하여 교사의 추천을 받아 수여했습니다.

주고 나서 보니 평소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아이들 만이 아님을 보면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예쁘셨겠구나 싶습니다. 상품은 학교 올 때 신는 운동화^^

넬서리-사벨,아라판,돌라

스쿨-루바이아(루비나선생님반).에호산(리따선생님반), 사밀(점빠 선생님반),사디까(꼴리 선생님반)



사벨(넬)  
사밀

루바이아  
사디까



2. 주님께서 풍성한 성탄선물을 주셨습니다.

1) 권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셔서 아가페 이름을 넣은 열쇠고리를 달아 주었습니다.

아가페 로고는 단기 ㅅ ㅅ로 왔던 황인애 자매님이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방을 메고 가는 사디까



선물이 잔뜩 든 가방을 안은 아이샤  
동생과 할아버지와 함께...

2) 간식이 잔뜩 든 선물을 한 봉지씩 가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자,우유,사과,초콜릿 등

3) 이곳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염소 고기를 선물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넬서리



폴리선생님 반



리따 선생님 반



루비나 선생님 반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주신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12월 14일(수)에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 1) 근 무력증으로 팔을 어깨 이상으로 올리지도 못하는 라미아가 찬양에 맞춰 울동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주님 보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저 아이를 꼭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 2) 반별로 울동도 했는데 ㅎㅎ 저 정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 3) 핸드벨 연주는 여전히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고요한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집니다.



4) 미니 드라마 공연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우리끼리 인데도 떨리는지 소리가 개미소리... 그러나 그들이 드라마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ㅎㅎㅎ



4. 라자와 포에즈, 반사가 방학기간 중 재활 센터에서 머물기 위해 CRP로 돌아갔습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개학 하면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손투스 할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더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어 시골로 내려가시고 새로운 분(스텝 리베 남편)이 성인 홈에서 라자와 포에즈를 돌보실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6. 썬티아를 위해서 스텝퍼를 장만했습니다.



혼자 걷는 연습 중 무릎 굽히기가  
잘 안되서 스텝퍼로 바꾸어 봅니다.

7. 널서리 하미다가 보족기를 신고 평행봉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자꾸 울며 안하려고 하지만 걷고 싶냐고 물으면  
걷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못하더니 지금은 5번 왕복 정도는 해냅니다.



### 방국 상황

선거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곳곳의 공사로 인해 먼지가 극심합니다.

내년 새해 1월 12일(목)부터 2주간 주말에 이스떼마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2년 동안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행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M들의 부흥회 입니다. 방국의 종교심이 세계적입니다. 이땅의 황무함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으신 7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개인적인 상황

바쁜 한 해가 정리되면서 이제 교사회의를 시작으로 새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늘 주님 앞서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방학 기간 중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학교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2) 늘 아이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스텝들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3) CRP에 간 라자, 포에즈,반샤가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라자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끔 구토를 하는데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내년에는 생활 교육에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과 방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5) 언어훈련을 2주간 쉴 파힘,루바이아,돌라가 집에서도 연습을 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걸을 수 있기를 원하는 라미아,살만,신띠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7) 홈2(성인홈)에서 포에즈와 라자를 돌보아 주기 위해 온 새로운 스텝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8) 방국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덮이길 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

**삼하 19:4**

자신을 반역하고 나간 아들 압살롬이 죽자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 앞에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는 다윗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왜 저리도 슬퍼할까 의아했었는데 이 말로할 수 없는 사랑이 없었던들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제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르치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에 목이 메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사 시작 전 제게 사진을 찍어달라고...ㅎ





← 학교 단체 사진  
 스텝 단체 사진  
 ↓ 넬서리 단체 사진



루비나 선생님 반-  
 아메나,파힘,받샤,루바이아,아부보골,빠리,  
 메헤라즈,라미아



리따 선생님 반-  
 모리엄,에호싼,살만,빠엘,빌랄



점빠 선생님 반-  
압둘, 씨판, 아킵, 사밀, 아이샤, 알라민



꼰리 선생님 반-  
샤밌, 신티아, 따하, 나킵, 머호나, 이아신, 사디까



흠2(성인그룹흠) 반-  
라자, 포에즈



수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 이땅에 기꺼이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눈물로 고백하는 새해되십시오.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를 위해 우리 아이들과 기도합니다.^&\**